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of Kazakhstan in Central Asia*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이 영 심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 수 조 재 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이 상 해
관동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정 재 국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YoungShim Lee

Home Economics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JaeSoon Cho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SangHae Lee

School of Architecture, Kwandong University

Professor : JaeKook Joung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결과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Corresponding Author: YoungShim Lee,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300 ChunChun-dong, Jangan-gu, Suwon, Gyeonggi-do, Korea Tel: 82-31-290-7577 E-mail: yslee99@hanafos.com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기초연구(과제번호: R01-2002-000-00252-0)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한 것임.

<Abstract>

Most of the Korean Diaspora who lived in Yunhaeju moved to Central Asia in 1937 following the deportation policy of Russia. The Korean Diaspora has maintained the traditional way of living for 140 years without a deep relationship with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dwellings of the Korean Diaspora of Kazakhstan in Central Asia through visiting their houses and conducting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houses of the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in early times consisted of Jungjigan which has Gudle and one bedroom. Gudle is the most traditional element of the Korean Diaspora's house and it is generally used as a place to gather family members. 2) The Korean Diaspora's houses in Kazakhstan were basically built according to Russian style but with a slightly different way of living inside. 3) The changing process of planning and building code of apartments in Kazakhstan is similar to that in Russia and other CIS nations. 4) Korean's food style is one mixed with Korean, Russian and Central Asian foods and Kimchi and Jang(bean paste) are the essential elements for most Koreans. 5) Koreans are very active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Kazaks, Uighurs, and Russians and this enables the exchange of their culture eventually.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to supply basic information for study of the Korean Diaspora in Central Asia and deeper research is necessary with a wide range in Russia.

주제어(Key Words): 한인동포(Korean Diaspora), 중앙아시아(Central Asia), 카자흐스탄(Kazakhstan), 러시아 생활양식(Russian life style), 전통생활양식(traditional way of living), 문화 교류(culture exchange)

I. 서론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북단은 모스크바, 남단은 한반도의 북부와 비슷한 위도이며 북쪽으로 러시아 연방, 동쪽으로 중국과 몽골,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카스피 해(海)에 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고금을 통해 동 서양의 문화나 산물을 교역하는 통로의 요충에 입지하여 민족의 이동과 성쇠가 복잡하였다. 17세기 중반 제정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카자흐스탄은 점차로 식민화되기 시작하며 1850년에 이르러 러시아 문화가 도입되고 러시아인들이 이주하게 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20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카자흐인(39.7%)을 비롯하여 러시아인(37.8%), 우크라이나인(5.4%), 독일인(5.8%), 타타르인(2.0%), 우즈베크인(2.0%) 등이며 이 중 한인 동포 즉, 고려인은 전체의 약 0.6%인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한길사, 1992).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시기는 20세기 초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정책이 강화

되고 극동에서 러·일간의 대립이 격화되어가던 시기였다. 일본은 조선 땅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조선을 러시아에 대한 전진기지로 삼았다. 1904-1905년 러시아의 황제 정부는 수백 명의 한인들을 간첩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게 되었다(П. Ким, 1993). 한편 1928년 봄에는 고려인들이 벼농사 재배법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 관구에서 300명 이상의 농민과 양잠업자가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왔다(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1997). 그리고 1937년에 러시아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하여 연해주에 거주하던 약 18만 여명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김명호 역, 1994). 1938년 봄에는 영구정착지로의 2차 이주가 있었으며(김명호 역, 1994), 고려인들은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기타 러시아 지역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고려인들은 거주지 제한정책으로 인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전

경수, 2002). 1991년에 구 소련이 와해되면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구 소련의 11개 공화국들이 각기 독립하게 되었다. 독립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회교중심 민족주의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연해주를 비롯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 등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실시한 카자흐스탄의 화폐개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타의 독립 국가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주춤한 상태이다.

주거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된 실체이다. 주거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았을 때 주거문화는 한 민족이나 사회집단의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영역으로서 그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그 안에 이미 미래를 담고 있는 생활문화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강영환, 1991). 한편 주거문화는 그 사회 집단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하므로 이를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총체적인 환경과 적응 방식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갖는 문화인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강영환, 1991).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역사는 연해주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40여년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한국과 밀접한 접촉이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면에서 한국의 전통풍속을 지키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인들의 주생활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동안 지켜 내려온 한국의 전통요소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토착문화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 문화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고려인의 초기 정착지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이영심·조재순, 2004 : 조재순 외 3인, 2003)에 이어 계속되는 연구로서 1937년 강제이주를 통하여 고려인들이 대거 이주한 대표적인 지역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와 주생활을 탐색하여 한국의 주거문화가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주거문화와 어떻게 조

화를 이루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적인 전통요소에 대한 탐색과 전통을 지속하는 방법 그리고 토착문화와의 절충에 관한 연구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사를 정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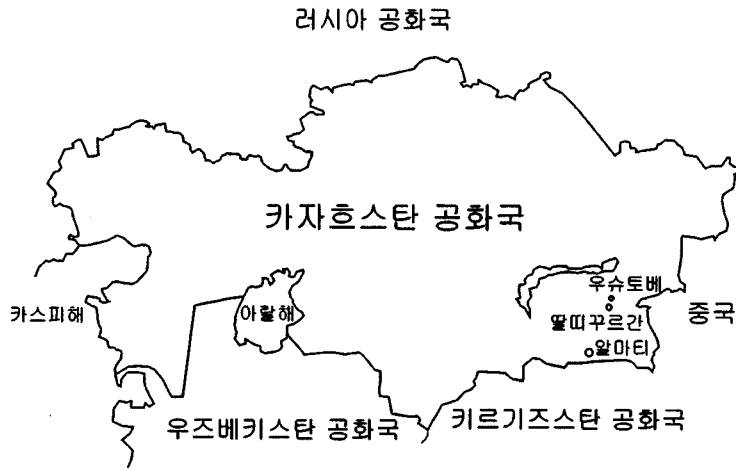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3년 11월 4일-11월 14일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이 처음으로 정착하였으며 현재 고려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알마티(Алматы)와 우슈토포베(Уштобе)지역 등 이었다.¹⁾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12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 5가구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구 소련시대의 기본 학제인 10학년을 이수하였고²⁾ 대부분 노령 연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길러 자급자족하고 있다.³⁾ 방문한 각각의 가옥에 대한 실측과 사진촬영을 병행하였으며 거주 주부를

1) 알마티는 1998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로서 1999년 인구조사 결과 약 20,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지역이다. 우슈토포베는 1937년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었을 당시 최초로 도착한 곳으로 현재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다.

2) 구 소련시대에는 기본 학제가 10학년이었으나 흐루시초프 시대(1953년) 이후 11학년제로 변경되었다.

3) 카자흐스탄의 경우 구 소련 시대에는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여자는 58세, 남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몇 해째 연금액이 절하되어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따라 많은 고려인들이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며 하숙을 하는 등의 부업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대부분 구 소련 시대의 경제 상태가 더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1〉 카자흐스탄 지도

대상으로 하여 면접을 행하였다. 면접에 사용한 질문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 사용방식

및 식사, 취침, 단란 행위시 좌식과 입식의 정도, 의복과 음식 그리고 관습 면에서 한국적인 요소의 지

〈표 1〉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고려인의 특징

주택 형태	이름	성별/나이	가족구성	건축 연도	주거소 유여부	난방방식	연료
단독주택 (땅집)	허애라	여/60	본인, 친정어머니	1977	자가	온수난방(구들)	가스
	최루시아	여/58	본인, 딸, 손자	1938	자가	구들	석탄, 나무
	엄라티놀	남/45	부부	1990	자가	온수난방(구들)	석탄, 나무
	현갈리나	여/64	부부, 맏아들 부부, 손주 3	1970	자가	온수난방, 구들	석탄, 나무
	이갈리나	여/67	부부, 아들	1985	자가	온수난방, 구들	석탄, 나무
	성여선	여/76	부부	1960	자가	페치카, 온수난방, 구들	석탄
	박보리스	남/72	본인, 아들, 손주 2	1970	자가	온수난방, 구들	석탄
	이다찌아나	여/68	부부	1977	자가	페치카, 온수난방	석탄, 나무
	니올가	여/78	본인, 딸부부, 손녀	1966	자가	페치카, 온수난방	나무
	김발렌티나	여/39	부부, 시어머니, 아들	1966	자가	온수난방(구들)	나무
아파트 (층대집)	전갈리나	여/40	부부, 아들, 딸	1967	자가	페치카, 온수난방	석탄, 나무
	김엘라	여/41	본인, 친정아버지	1966	자가	온수난방	석탄, 나무
	김따마라	여/64	본인, 아들 2	1974	자가	중앙난방	가스
	이데니스	남/22	본인	1976	임대	중앙난방	가스
	박넬리야	여/52	부부	1975	자가	중앙난방	가스
	최발렌티나	여/75	부부	1968	자가	중앙난방	가스
양루드밀라	여/62	부부	1970	자가	중앙난방	가스	

*구들은 재래식 구들을, 온수난방(구들)은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매입한 개량형 구들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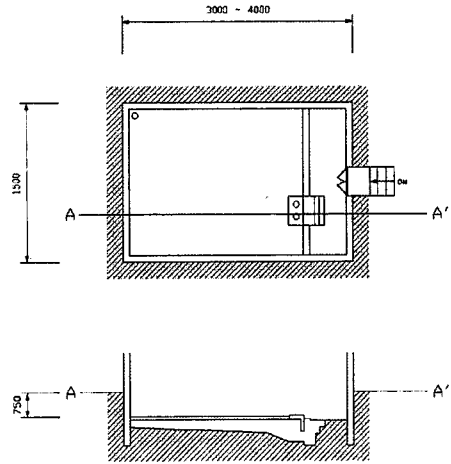
속 정도, 주택 형식별 난방 방식과 주거관리비용, 그리고 카자흐인과 러시아인 등 타 민족과의 친분 정도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연구 결과

1. 카자흐스탄 고려인 주택의 시대별 변화과정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1937년 강제이주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거주 지역을 옮기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지역의 이주 목적지인 알마티와 우슈투베 등지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도착한 순서에 따라 지역 토착민인 카자흐 족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주민에 비하여 주택이 부족하였으므로 많은 고려인들은 학교, 병원, 감옥이었던 건물 등과 곡식 창고, 마구간 등에서 1년여를 거주해야만 했다. 후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거처할 곳이 없어 땅 밑에 토굴을 파고 살아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풍토병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려인들이 희생당하였다. 거처할 곳이 없던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살아야 했던 토굴은 땅 표면에서 75cm 정도의 깊이를 파고 가로 150cm, 세로 300-400cm 정도의 넓이로 마련하였으며 이 곳에 한 가족이 거주하였다. 토굴 안에는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겸용하였고 구들에서 식사와 취침을 함께 하였다. 토굴 위의 평지에는 나뭇가지와 풀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어놓았다(그림 2)(그림 3).

이러한 토굴은 1939년도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러시아 정부에서 지어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다. 초기의 주택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료를 주로 사용한 것이었다. 즉, 짚(갈대)을 엮어서 벽 구조를 세운 후 그 위에 흙을 발라 벽을 형성하였다. 후에는 흙덩이 뭉친 것을 위로 쌓아올려 벽을 만들기도 하였다. 주택의 지붕은 나무로 서까래를 만들고 짚로 그 안을 엮은 후 위에는 흙을 덮었는데 밖에서 보면 풀이 자란 것이 보이기도 하였다. 주택 내부의 천장 쪽 역시



〈그림 2〉 강제이주 초기의 토굴내부 추정도



〈그림 3〉 강제이주 초기의 토굴

"사진으로 보는 한인 이민사와 카자흐스탄" 사진전
(국립민속박물관, 2003. 11. 12. - 12. 1)

짚로 엮고 그 위에 회(灰)로 마감하였는데 가끔 흙이 방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물이 새곤 하였다. 당시의 주택 창문에는 유리 대신 백(白)종이를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흙벽돌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의 흙벽돌 역시 여러 가지 자연재료가 혼합된 것이었다. 즉, 땅을 파고 새똥, 말똥, 흙, 짚, 물을 섞은 후 밟아서 혼합한 것을 틀에 넣어 빼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재료로 만든 초기 주택의 구조는 방 2칸으로 이루어진 한 단위의 주택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식이었다. 두 개의 주택은 각기 독립된 출입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단위의 주택에 한 가정이 거주하였는데 가

족원이 많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 가정이 거주하는 방 2칸의 주택은 구들이 있는 정지간 1칸과 그 옆의 방 1칸으로 구성되었다(그림 4)(그림 5). 정지간은 조리과 식사를 행하는 외에 아이들의 공부와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옆방은 대개 부부의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조리와 난방을 겸하는 정지간의 구들 구조는 바닥 아래에 돌을 깔아 연기 통로를 만든 형식이었고 연료는 주로 풀과 짚을 사용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1941-1945년)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힘들어짐에 따라 1950년대에는 낡은 집을 고쳐서 사용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한편 콜호즈(협동농장)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도 했는데 이 때 지은 주택은 주로 러시아 식이었다. 구들이 있는 고려인 가옥은 1960년대 이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등지에서 강제이주된 이주민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가옥 형태가 많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후에 가서는 가옥자체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고려인들이 새로 건축한 주택은 대부분 러시아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난방 방식 역시

폐치카를 도입하여 고려인 주택에서 구들은 점차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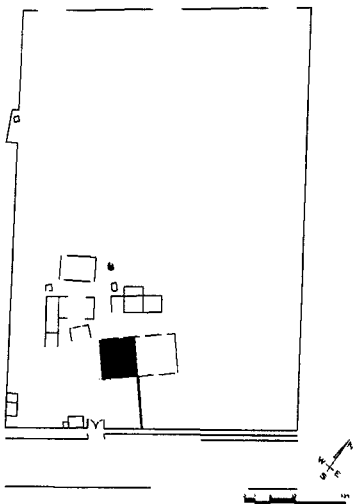
2. 카자흐스탄의 주택 유형별 요소와 특성

카자흐스탄의 주택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분류되며 주택 유형에 따라 이들의 주거 특성과 주거 생활이 다르므로 연구 결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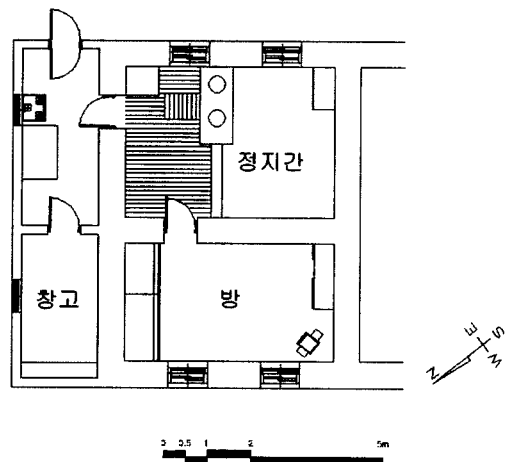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의 개요

카자흐스탄의 주택은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겨울의 찬바람을 막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주택 외벽이 매우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주택의 색상은 카자흐스탄 인들이 선호하는 색상인 흰색과 하늘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택의 구성은 개별 주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주택 본체를 중심으로 하여 가축우리, 연료창고, 목욕실(반야: БАНЯ), 야외샤워시설, 야외화장실, 야외 베란다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주택의 앞쪽이나 뒤쪽에는 텃밭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각종 야채는 자급자족의 원천이며



<그림 4> 1938년 건축된 최 러시아 가옥 배치도



<그림 5> 최 러시아 가옥 본채 평면도

때로는 시장에 팔아 가정 경제에 도움을 얻기도 한다. 소, 돼지, 닭, 양 등의 각종 가축을 키워서 얻는 생산물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주택 주변에 땅을 갖지 못하는 도심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국가로부터 교외의 땅을 임대하여 수시로 이 주말농장(다차: ДАЧА)에 가서 농사를 지어 필요한 야채를 얻는다. 야외샤워시설과 야외화장실은 발일을 하는데 편리한 시설로서 주택 내부에 상수도과 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대에 사용하였던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시설이 갖추어진 요즘에도 관습적으로 계획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년 치의 석탄과 나무 등의 연료를 한꺼번에 사서 저장해둔다. 이는 물자가 부족했던 구소련 시대의 관습인데 물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에도 대부분의 주택이 석탄과 나무 등의 연료를 쌓아놓을 수 있는 연료창고를 갖추고 있다. 개인 주택에 별채로 목욕실을 갖추는 것은 러시아의 전통으로 최근에 와서는 주택 내부에 많이 계획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갖추기도 한다. 여름에는 마당에 야외 베란다를 계획하여 바베큐 등을 하는데 베란다가 없는 경우에는 마당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밖에서의 식사를 즐긴다. 대개의 고려인들이 처음에는 침실, 부엌, 거실로 구성된 규모가 작은 집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 옆에 큰 집을 짓는다. 새 집을 지은 후에 기존에 거주하였던 작은 집은 여름부엌이나 목욕실 혹은 창고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한 자녀가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도 한다.

(2) 단독주택의 공간구성과 사용

카자흐스탄 주택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전통 주택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단독주택 역시 러시아의 일반 주택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⁴⁾

① 출입구(그렐쵸: КРЫЛЬЦО)

카자흐스탄 주택 외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주택 본체에서 출입구 부분이 앞으로 돌출된 것으로 이 부분을 그렐쵸라 부른다. 그렐쵸의 주 목적은 외부

로부터의 찬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는 외관의 장식을 위하여 현대 주택에도 적용하고 있다. 카자흐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데 주로 이 곳에 신발을 벗어두며 공간이 여유 있는 경우 이 곳에 신발장을 만들기도 한다. 고려인 역시 그렐쵸 부분에 신발을 벗어두거나 신발장을 마련하여 사용한다(그림 6).

② 주택 내 베란다(ВЕРАНДА)

출입구에서 주택 내 복도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대개 주택을 넓히는 과정에서 덧달아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곳에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를 두고 여름부엌으로 많이 사용하며 그 외에 휴식 공간 혹은 물건 수납이나 곡식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③ 페치카(ПЕЧКА)

페치카는 러시아의 전통 난방방식으로 러시아 주택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 역시 페치카를 기본적인 난방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페치카의 원리는 난로에서 가열한 뜨거운 공기를 벽 안에 만든 공기 통로를 통과시켜 주변의 방들을 덥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페치카에서 덥힌 물을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도록

4) 구 소련 시대에는 러시아의 전 지역에 동일한 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동일한 주택 형식을 공급하였으므로 거의 모든 러시아 지역이 유사성을 보인다.



<그림 6> 출입구인 그렐쵸와 덧달아낸 베란다 부분

록 하거나 온수파이프를 바닥에 깔아 구들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폐치카 없이 구들만 있는 1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치카를 갖추고 있었다. 폐치카의 연료는 가스만 사용하는 1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전통 연료인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였다(그림 7).

④ 여름부엌(렛나야 꾸흐냐: ЛЕТНЯЯ КУХНЯ)과 겨울부엌(짐나야 꾸흐냐: ЗИМНЯЯ КУХНЯ)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여름 부엌과 겨울 부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대개 폐치카가 있는 곳을 겨울 부엌으로 사용하며 여름부엌은 별채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폐치카와 구들이 있는 곳을 겨울 부엌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개 주택 내 배란다 부분에 가스레인지와 조리대를 두고 여름부엌으로 사용하였다. 몇몇 경우는 마당 한 쪽에 아궁이와 조리대를 마련하여 여름 부엌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그림 8).

⑤ 목욕실(반야: БАНЯ)

반야는 대부분의 러시아 가정이 갖추고 있는 목욕 시설로 전통적으로 별채에 계획한다. 반야는 대부분 별도의 폐치카로 욕실 내부를 뜨겁게 만들어 사용한다. 욕실 내부는 나무로 만든 벽과 계단식 발판으로 구성하며 한쪽에 자갈을 쌓아두고 가열된 자갈에 물을 끼얹어 발생하는 증기를 쫓거나 말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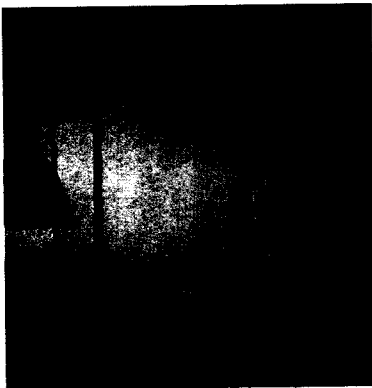
참나무 잎 다발을 적서 몸을 두드러가며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대부분 주택 내부에 반야를 두고 있었다(그림 9).

⑥ 저장시설(뽀그렙: ПОГРЕБ)

카자흐스탄의 주택은 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을 주택 내, 외부에 갖추고 있다. 그 크기는 마루 바닥 아래에 계획한 작은 저장고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큰 것이 있으며 때로는 별채로 지하저장실을 만들기도 한다. 여기에는 배추, 양파, 감자 등의 기초 식량과 병조림 식품 등을 보관한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마당에 움을 파서 야채를 보관하기도 하고 몇 경우는 움 안에 김치독을 묻은 경우도 있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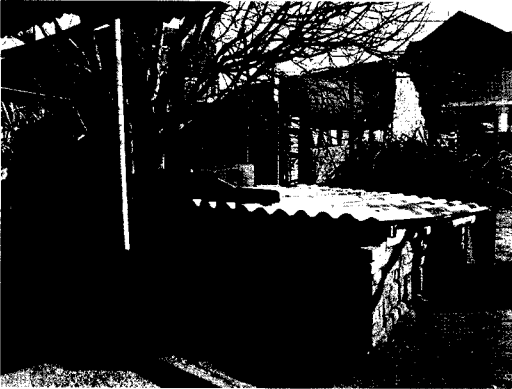
〈그림 8〉 전통목욕시설인 반야



〈그림 7〉 난방과 조리 겸용의 폐치카가 있는 겨울부엌



〈그림 9〉 야외에서 사용하는 여름부엌



<그림 10> 지하저장시설인 보그랍



<그림 11> 야외샤워시설인 두쉬

⑦ 개별 텃밭(아가로드: ОГОРОД)

카자흐스탄의 주택은 대부분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다. 텃밭에서 얻는 생산물들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원천이며 가정에 따라서는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다. 텃밭에서 얻는 채소는 토마토, 배추, 오이, 감자, 콩, 양파, 양배추, 고추, 가지, 상추, 당근 등이며 이 외에 각종 과일나무를 통하여 과일도 얻는다. 뒷마당에는 개, 닭, 오리, 돼지, 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데 이 역시 가족을 위해 소비하거나 경제적인 소득원이 된다.

⑧ 야외 화장실(투알렛: ТУАЛЕТ)

전통적으로 단독 주택의 화장실은 야외의 텃밭 가까이에 위치하여 텃밭에서의 활동을 편하게 해준다. 재래식 화장실은 구덩이를 판 후 위에 나무로 벽과 문을 구성하는데 구덩이가 다 찬 후에는 흙으로 덮고 다른 쪽을 또 파서 마련한다. 과거에 화장실을 밖에 두었던 이유는 주택 내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하수 시설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야외 화장실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⑨ 야외 샤워시설(두쉬: ДУШ)

단독 주택의 마당 한 쪽에는 위에 물통이 없혀 있는 나무 박스가 있는데 이는 여름에 야외에서 샤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전에는 주택 내에 상수도가 없어서 이러한 야외샤워시설을 만들었으나 상수도 시설이 갖춰진 요즘에도 전통적인 주거 설

비의 하나로 갖추기도 한다. 샤워용 물은 빗물을 받아두거나 혹은 물을 채워 햇볕에 데운 후 이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하여 사용한다. 이는 특히 여름에 밭일을 하고 난 후 몸을 씻고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그림 11).

⑩ 우물시설(칼로데치: КОЛОДЕ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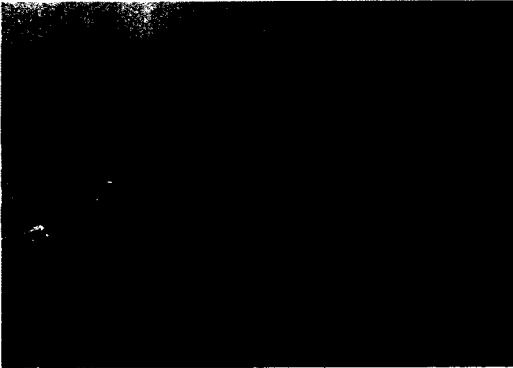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의 경우 주택 내에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식수를 길어다 사용한다. 여러 집이 함께 공동우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우물이나 펌프를 설치하기도 한다.

⑪ 구들

조사대상 고려인 주택 12 가구 중 구들이 있는 경우는 모두 8 가구였으며 이 중 현재까지 구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7경우였다. 구들의 기본적인 형태는 마루 밑에 아궁이를 만들어 이곳에 내려가 앉아 불을 피우면 마루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고래를 통해 뜨거운 열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는 것이었다. 구들의 축조 시기는 1938년도부터 1970년대, 1990년대의 것까지 다양하였는데 최근에 축조한 경우는 구들의 원리를 적용하여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것이었다. 구들 아궁이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경우는 3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큰술에 물을 끓이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구들방을 취침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5경우였는데 이 중 2 경우는 구들방 위에 침대를 놓고 사용하였다(그림 12). 이는 따뜻한 바닥에 앉기를 원하는 좌식 문화와 오랫동안 지



〈그림 12〉 침대를 놓고 생활하는 구들의 예(이 갈리나역)



〈그림 13〉 취사와 식사, 단란을 겸하는 구들의 예(현 갈리나역)

속해온 입식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이 구들을 놓거나 구들이 있는 집을 구입한 이유는 가족들의 단란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 구들방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림 13〉. 구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5 경우였는데 바닥에 상을 펴고 앉는 경우는 3 경우였으며 구들에 식탁을 두고 식사하는 경우는 2 경우였다. 현재 구들을 소유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구들이 있는 집에서 거주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려인 아이들 역시 따뜻한 바닥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구들의 지속성은 개인적인 거주 경험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들의 연료는 예전에는 풀과 갈대를 주로 사용

하였으나 현재는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들이 별채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한다.

(3) 단독주택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은 대개 주택의 출입구에 신발을 벗어두고 생활하였는데 이는 고려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출입하는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신발장을 두고 있으나 대개는 한쪽 구석에 신발을 그대로 벗어두는 것이 보통이다. 고려인들의 취침은 대부분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의 형태였으며 식사 역시 대부분 러시아 전통에 따라 부엌의 식탁에서 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가족이 모였을 때는 고려상을 펴고 앉기도 하는데 이 때에 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집에 구들을 만든 이유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 구들을 만들었다.”(허에라, 60세)

“식사는 부엌의 식탁에서 하지만 가족들은 식사 후 편안한 자세로 구들에 모여 시간을 보낸다. 가족 모두 구들에 앉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엄라티눌, 45세)

“잠은 침대에서 자고 밥은 등그런 상을 펴고 앉아서 먹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다. 마을 사람들 역시 바닥에 앉거나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에 모두 익숙하다.”(김발렌티나, 39세)

바닥에 고려상을 펴고 앉을 때에는 목도산⁵⁾을 함께 사용하는데 목도산은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의 힘든 동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바닥에 펴는 고려상은 점차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라 한다. 많은 손님을 접대할 경우 거실에 큰 탁자들을 연결하고 의자를 보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실을 식사실의 대응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하여 대부분이 필요량보다 많은 의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카펫을 바닥에 깔고 벽에도 걸어 둔 모습을 볼

5) ‘목독산’이라고도 한다. 높이 20센티 정도의 나무로 만든 간이 의자로 고려인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이 사용한다.

수 있었다.⁶⁾ 이는 중아시아의 전통 문화인데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은 발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며 벽에 카펫을 거는 것은 보온과 방음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는 바닥에 부분 카펫을 까는 대신 전체 카펫을 까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벽에는 카펫 대신에 그림을 걸기도 한다.

고려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한복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한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식사 시에는 주로 젓가락 대신 포크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대부분 김치와 장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며 생선으로 젓갈을 만들기도 하였다.

“마당에 있는 가마솥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인데 물을 끓이는 데도 사용하고 된장과 간장을 다릴 때도 사용 한다.”(박보리스, 72세)

“남편과 아이들 모두 집에서 밥, 김치(김치), 자이(장) 등의 고려음식을 먹으며 명절에는 찰떡, 증편, 시락장물(시래기된장국)등의 고려 음식을 해 먹는다. 아이들의 민족은 고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러시아인 전갈리나, 40세)

조사대상자들 중 3 경우는 김치와 장을 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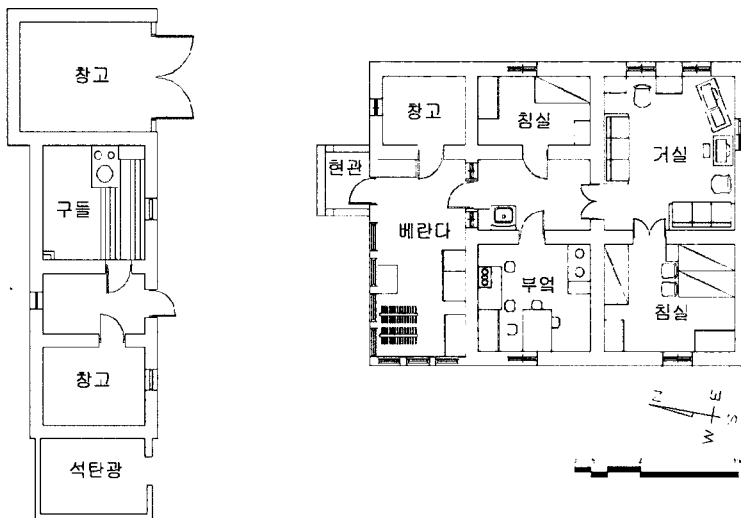
팔기도 하였는데 된장에 기름, 양파, 파, 고추, 마늘을 넣고 만든 장은 ‘된장 잼(jam)’이라 하여 타국 민족들이 선호하는 식품이라 한다. 일상식은 대부분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하며 반찬은 러시아식과 중앙아시아식 그리고 한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때는 추석, 한식, 설날 등의 명절과 생일날로 이때는 증편과 골미떡(절편), 찰떡, 팔 시루떡 등의 전통음식을 해 먹는다.

“가족의 생일과 명절에 가족이 모두 모인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꼭 끓이고 증편과 시루떡을 해서 먹는다.”(니올가, 78세)

“추석과 한식 때에는 제사도 지낸다. 산에 가서 지내는데 밥에 물을 말고, 달걀지짐이, 팬케이크(부침개), 찹쌀떡, 초코렛, 보드카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등을 놓는다.”(김순녀, 81세)

조사대상자들 중 2 집은 마당에 연자방아가 있었는데 주로 고추와 매주를 쪄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이웃에 거주하는 카자흐인, 위

6) 중아시아에서 바닥에 까는 카펫은 발라스(палас), 벽에 거는 카펫은 까요르(ковёр)라고 부른다. 까요르는 발라스에 비하여 섬유질 길이가 더 길고 색상과 무늬가 더 화려한 특징이 있다.



<그림 14> 우슈또베 정니콜라이 가옥

구르인, 러시아인 등 타 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었는데 의사소통은 대개 러시아말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교제는 각 민족의 음식 문화가 교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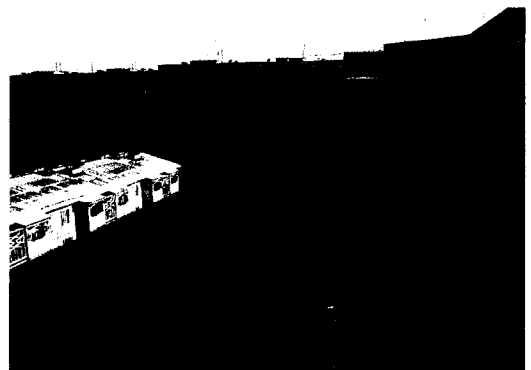
단독주택에서 소요되는 주거비는 가스세, 전기세, 수도세, 토지세, 전화세 등이다. 전기세는 1kw당 4.60뎡게(396원)⁷⁾로 집의 크기에 따라 300-350뎡게에서 많게는 1000뎡게 이상까지도 사용한다. 가스세는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1 입방미터 당 10뎡게로 계산한다. 수도세는 냉수의 경우 1입방미터 당 10.67뎡게 이나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 외에 토지세는 1년에 1번 내는데 이는 집을 포함한 토지의 규모에 따른 것으로 적게는 200-300뎡게에서 많게는 1,500뎡게까지 내며 국가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면제받기도 한다. 주택의 난방은 구들만 있는 1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페치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구들을 겸용하는 식이었다. 페치카의 연료는 석탄과 나무인데 주 연료인 석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톤에 2500뎡게 정도로 한 겨울에 보통 3-4톤 정도를 사용한다.

2) 아파트

(1) 아파트의 개요

카자흐스탄은 1985년 러시아의 사회개혁 운동인 페레스트로이카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다른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든 주택을 건설하고 분배하였다.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사유주택을 국유화하는 한편 대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의 한 호에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부엌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널 아파트(Communal Apartment)였다. 이러한 커뮤널 아파트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세메이노예 오브셰지티예'(가족공동주택: Семейное Общжитие)의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세메이노예 오브셰지티예'는 기숙사 형식이었는데 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여러 가족이 기거하는 방들이 있었으며 복도 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과 욕실이 있었다. 커뮤널 아파트는 모스크바, 쌍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의 도시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데 최근에는 개인의 소유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반면 기숙사 형식인 카자흐스탄의 '세메이노예 오브셰지티예'는 공부나 취업을 위하여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빈민들이 임대하거나 혹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1950년 이후에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 주택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55년에 시행한 티피칼 프로젝트(Typical Project)였다. 이에 따라 외형이 단순하고 색상과 디자인이 통일된 아파트를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였고 이는 주택 부족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티피칼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안은 중앙의 모스크바에서 계획한 6-7개의 시리얼(Serial)로 구성되었으며 이 계획안을 카자흐스탄에서 시행할 때에는 기후와 사회적인 상황 등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였다. 1960년대에 후르시초프의 집권 하에 시행된 티피칼 프로젝트는 후르쇼프카(ХУРШОҒҒА)라 불리었는데 대부분 5층 아파트였다(그림 15). 후르쇼프카는 욕실과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고 부엌 면적이 5-6 m²로 작았는데 이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



<그림 15> 후루쇼프카 아파트(왼쪽)와 1990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오른쪽)

7) 1뎡게 = 86원

심, 저녁을 직장에서 해결하였으므로 부엌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택의 분배에는 가족의 수와 구성, 그리고 자녀의 성별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방의 수와 주택의 규모를 달리하여 배분하였다. 1980년대 이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하면서 주택에 사유재산 개념이 도입되었다.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이후에는 국영주택의 거주자들에게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싼 가격으로 혹은 무상으로 불하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영주택이 사유화되었으며 '세메이노예 오브세지티예'의 각기 다른 가족들이 사용하던 방들도 역시 개별적으로 사유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지진의 위험 때문에 5층 또는 9층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16층까지 건설되고 있다. 최근의 아파트는 '후루쇼프까'에 비하여 부엌을 비롯한 전체적인 면적이 커졌으며 화장실과 욕실을 합하여 계획하는 경향이 있고 방 사이에 있는 벽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도 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뒷집 혹은 옆집과의 벽을 터서 넓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아파트의 공간구성과 사용

① 아파트의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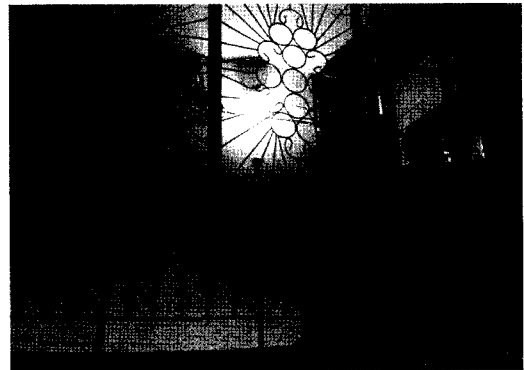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의 아파트 입구는 대개 지붕이 있고 본체에서 분리된 형태이며 출입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겨울의 추위에 대비한 장치로 출입구의 지붕은 건물 윗부분에서 떨어지는 얼음조각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해주며 이중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접적인 바람을 막아준다(그림 16).

② 주호의 출입구

각 개호의 출입문은 주로 목재로 되어 있는데 이 출입문 안에 내부의 문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맨 위층은 양쪽 집으로 통하는 공간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공동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그림 17).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출입구에 간이 수납장을 두어 신발장으로 사용하거나 공간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신발장을 짜서 수납하기도 한다(그림 18).



<그림 16> 아파트의 출입구와 이중 출입문



<그림 17> 두 집이 함께 사용하는 아파트의 안전망



<그림 18> 이중 출입문과 신발 수납

③ 거실

거실은 주로 가족 단란의 중심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파와 탁자, 장식장, TV 등이 거실을 구성하는

기본 품목으로 가족이나 손님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탁자 옆에 목독산을 두어 함께 사용하였다. 가족이나 손님 접대 시 바닥에 고려상을 펴기도 하나 대개는 거실에 식탁과 의자를 두고 사용하고 있다.

④ 침실

침대는 침실을 구성하는 기본 가구로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대부분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거실의 소파를 침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침대 옆 벽에 카펫을 걸거나 바닥에 전면 혹은 부분 카펫을 깔아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중앙아시아식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림 19).

⑤ 부엌

부엌의 기본 설비는 입식 조리대와 식탁, 의자 등이며 가족들의 식사는 러시아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 부엌에서 행하고 있었다. 부엌 옆에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가스레인지로 두고 조리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 원래의 부엌은 식사 공간으로 넓게 활용한다(그림 20).

⑥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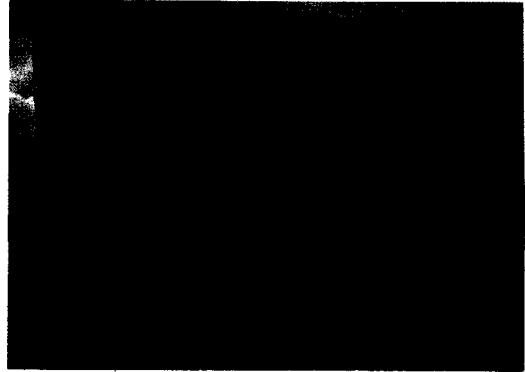
조사대상 아파트는 대부분 변기가 있는 공간과 욕조, 세면대가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한 아파트는 욕조와 세면대, 변기를 한 공간에 계획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욕조가 있는 공간에 세탁기를 두며 이곳에서 손빨래를 겸한다.

⑦ 베란다

최근에 건축한 아파트는 대부분 베란다가 부엌과 침실의 두 공간에 연결되어 있다. 베란다는 대개 수납공간 혹은 화초를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 들어 침실 쪽 베란다는 벽을 터서 침실 공간을 넓히기도 한다. 또한 부엌 쪽 베란다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혹은 조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여 식사 공간을 넓게 만들기도 한다.

(3) 아파트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출입구 주변에 신



〈그림 19〉 벽에 카펫을 걸어놓은 거실의 모습



〈그림 20〉 부엌 옆의 베란다는 조리영역으로 사용하는 예

발을 벗어두거나 혹은 신발장을 한 쪽 구석에 두어 신발을 수납하였다. 아파트 거주 고려인들은 취침시에 모두 침대를 사용하였고 침대 사용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주말농장인 다차에 구들을 놓고 싶어하기도 하였다. 부엌에서 조리하고 식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식탁을 두 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간혹 바닥에 고려상을 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고려상은 주로 가족 모임이나 아기의 돌 등의 특별 행사시에 사용한다.

“얇은뽕이 상은 주로 아기의 돌 때에 많이 사용하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한 경우에 바닥에 펴서 사용하기도 한다.”(박넬리아, 52세)

“손님이나 가족이 많이 모이면 식탁을 두 개 붙여서 사용한다. 의자가 충분하므로 문제는 없다. 그리

나 구들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았으면 하고 바란다.”(최발렌티나, 7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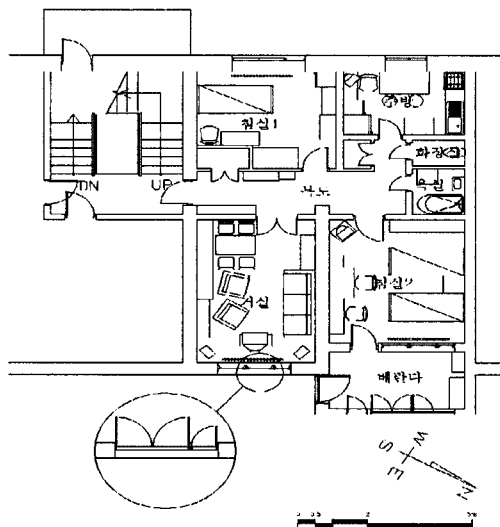
실내 바닥에는 대부분 카펫을 깔았으나 단독주택에 비하여 벽에 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식사는 밥과 된장국을 기본으로 하는데 김치는 담그거나 사 먹는 경우가 반반으로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다고 하였다.

“김치와 장은 작년까지는 담가 먹었으나 이제는 안 한다.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모두가 모여 김치와 장을 담그는 것을 돕고 함께 나눠 먹곤 했다.”(김따마라, 64세)

“예전에는 장모님이 김치를 담가 주셨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잘 못한다. 예전에는 배추김치를 해서 파묻기도 하고 나가 팔기도 했는데 요새는 잘 안한다.”(양원식, 62세)

여름엔 국수와 만두를 특히 많이 해 먹는데 국수는 고려인을 통하여 다른 민족에게 전파된 대표적인 고려 음식이다. 손자녀 세대로 이어지면서 고려인들의 이민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 역시 고려 음식과 러시아 음식, 중앙아시아 음식 등이 혼합되어 있다. 조부모 세대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했으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모두 포크를 사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아파트 거주자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 이사 온 사람들과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대부분 현 거주지에 오래 거주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이웃의 카자흐인이나 러시아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소요되는 주거비는 전화비, 가스비, 난방비, 수도비 등이다.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 다르며 가스비는 사람 수로 계산하고 온수와 전기는 계량기로 환산한다. 주호 외부의 시설은 항목에 따라 보통 5년에서 20년 정도에 한번씩 공적인 수리를 해주는데 주호 내는 철저히 주민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비가 비싼 편으로 특히 전기와 온수 값이 비싸다.⁸⁾ 카자흐스탄의 아파트는 대부분 중앙난방 방식인데 조사대상 아파트는 모두 알마티 한 곳에서 가열한 온수를 파이프 라인을 통



〈그림 21〉 김 따마라 가옥

하여 공급받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난방이 잘 되어 따뜻하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지하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파트의 가격은 대개 지리적인 위치, 위치한 층수, 그리고 구조재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전에는 1층이 안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가격 수준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1층을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 가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였다. 맨 위층 역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며 수압이 약한 이유로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도심의 공기가 오염되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IV. 결과 요약 및 제언

1.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1937년 강제이주를 통하여 카자흐스탄에 이주했을 때 그들의 초기 주거는 카자흐인들의 주택에 들어가 함께 살거

8) 구 소련 시대에는 전기세, 가스세 등의 공과금이 저렴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나 현재는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생활비용이 인상되어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나 학교, 병원 등의 공공건물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부는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등 매우 열악하였다. 임시 거주시기를 거친 후 1939년도 경부터 토굴이 없어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어 분배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다. 이는 흙벽돌로 만든 정지간 1칸과 방 1칸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고려인이 거주한 초기의 가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의 초기 가옥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역사와 관련지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인의 초기 가옥들은 역사적 사실의 고찰이라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의 주거를 비롯한 역사 전반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구소련 시대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러시아 전체에 동일한 주택제도가 실시되고 유사한 주택형식을 공급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도시 주택난의 해결을 위하여 대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한 호에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커뮤날 아파트(Communal Apartment)로 카자흐스탄은 '세메이노예 오브세지티에' (Семейное Общежитие)라는 이름으로 공급되었다. 1950년 이후에는 티피칼 프로젝트(Typical Project)가 시행되었고 카자흐스탄 역시 외형과 디자인을 통일한 아파트인 '후루쇼프카'(ХРУЩЁВКА)가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19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실시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유주택이 사유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아파트는 최근 들어 건물 층수가 높아짐은 물론 각 실의 넓이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아파트는 외형과 내부구조에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모습과 유사함을 보이나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의 주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려인의 주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기타 다양한 민족 간의 비교 연구로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카자흐스탄의 단독 주택은 러시아의 주택 형식

을 기본으로 하여 건축하므로 외형에서 러시아의 일반 주택과 매우 유사하다. 즉, 주택 본체를 기본으로 주변에 텃밭과 가축우리가 있으며 연료창고, 목욕실(반야), 야외샤워시설, 야외화장실 등이 부가되는데 이는 고려인이 직접 건축한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이는 주택의 형성에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 그리고 그와 연관한 거주자의 생활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근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주생활에서는 카자흐인이나 러시아인과는 구별되는 고려인만의 특성을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주택에 구들을 놓는 것으로 구들방은 겨울 부엌 그리고 가족단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구들에서의 식사와 단란은 주로 고려상을 이용하여 좌식으로 행하는데 이는 많은 가족이 모이거나 손님을 치를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생활이 타 문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전통문화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는 고려인들의 생활에 지속되고 있는 전통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카자흐 족을 비롯한 타민족간의 문화 수용 방식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역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행하는 이러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각 민족 간의 정체성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4.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택에서 나타난 가장 전통적인 주거 요소는 구들이었다. 구들은 고려인이 연해주에 거주하기 시작한 1860년경부터 고려인 주택에 자리 잡기 시작하여 1937년 강제이주를 통하여 그 거주지를 카자흐스탄으로 옮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려인 주택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연구 결과 가장 뚜렷하게 파악된 구들방의 기능은 식사 등을 포함한 가족의 단란 장소로서의 역할이었다. 구들의 축조방법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축조 재료와 연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였다. 현재 구들을 사용하는 고려인들은 과거에 구들을 경험했던 노인 세대가 대부

분으로 구들의 지속성은 이들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구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카자흐인들의 주생활이 좌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카자흐인들의 구들에 대한 선호 정도는 최근에 점차로 높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카자흐인들은 주택 내에 구들을 놓기도 한다. 구들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전통 의식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으로 사료된다. 구들의 경험이 구들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때 특히 젊은 세대를 비롯한 많은 고려인들이 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카자흐스탄에서 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5.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주택 형태에 관계없이 밥과 국이 일상 식(食)이며 김치와 장을 집에서 담그고 생선으로 젓갈을 만들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음식이 공존하며 특히 카자흐인은 김치와 장을 좋아하여 고려인들이 집에서 만들어 파는 김치와 쌈장이 특히 호평을 받고 있다. 국수는 고려인들이 여름에 매우 자주 먹는 음식으로 타민족에게 전파된 대표적인 고려 음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들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카자흐식과 러시아식 그리고 한국식이 골고루 섞여있는 혼합식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인들은 대개 새해와 한식 때 윗 어른이 계신 곳으로 가족이 모여 추석과 한식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와 잔치에는 증편, 과줄(산자), 골미떡(질편), 팔 시루떡 등을 꼭 준비하며 이를 만드는 법은 구전으로 이어가고 있다.

6. 조사대상 고려인들은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려인일수록 이웃의 카자흐인, 위구르인, 러시아인 등 타 민족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카자흐인들은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에 정착할 당시 많은 도움을 준 민족으로 이는 두 민족이 오랜 세월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으로 파악되었다. 타 민족간의 의사소통은 대개 러시아어로 이

루어지며 이들의 교제는 곧 타민족 간의 문화가 교류되는 기반이 된다. 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 교류와 그 결과 나타나는 생활 전반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각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민족 간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인 뿐 아니라 이들과 교류하는 특정 민족의 주생활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1937년에 대거 이주하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인 카자흐스탄을 선정하여 카자흐스탄의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생활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연구이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아시아의 타 지역 그리고 중앙 러시아지역까지 그 연구 범위를 넓히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강영환(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지문당.
-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김 예비게니 예브게니 예비치 편저, 김명호역.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상해, 이진현(2003).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 이영심, 조재순(2003).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185.
- 이영심, 조재순(2004).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 - 연해주(Yunhaju: 沿海州)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5(1), 51-62.
- 이영심, 조재순, 이상해(2003).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59-71.
- 전경수(2002).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재순, 이영심, 이정규, 이선희(2003). 중앙아시아에

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01-107.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1997).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한길사 편집부(1992).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을 아는 사전. 한길사.

П. Ким (1993). Корейц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И.С. Болджурова История (2003). культура и быт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Ышккк.

Ким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1999). корейцев, книга перва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20В-1945г., Алматы.

Д.В. Мен (1992).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2004년 2월 27일 접수, 2004년 6월 8일 채택)